

I. 시작하는 말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 초실절은 안식 후 첫 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먹고 소유하기 전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 요제를 드립니다. 초실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중심 말씀

1.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진영 밖에 떨어져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열매를 보기까지 참 많은 노력이 들고, 그래서 내가 열매를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주심을 기억하며, 드릴 것을 먼저 구분해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이미가 있습니다.

나눔 질문)

2. 초실절은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이삭은 모든 추수가 마쳐지고 한 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시점부터의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그 밭의 처음이자 마지막 농산물일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실절은 믿음의 절기입니다. 눈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두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작은 것을 드림으로 믿음을 표현합니다.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없더라도, 혹은 너무 초라해보이는 열매만 있더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있는 것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눔 질문)

3.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는 이후의 열매를 보증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가 되었기에, 이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부활이, 그의 승리가 보증이 됩니다. 또한 초실절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마쳐진 다음 날,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오신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눔 질문)

III. 정리하는 말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첫 이삭을 드리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부활도 꿈꾸게 됩니다. 초실절의 의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잘 담기길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주님께 영광” (찬165)

- (1)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 (2)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 (3)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가게 하소서

후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